

전세계 농업분야 최고 전문가 1만명 광주에 모인다

국제관개배수위원회 총회 내달 14~20일 DJ센터서

가뭄 등 기상 이변·농촌용수 확보·식량안보 등 논의

전 세계 60여개국의 농업·물·환경·식량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14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International Congress on Irrigation and Drainage) 총회'가 오는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한국관개배수위원회와 2014ICID광주총회 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무·박재순)가 주관하고, 농림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주최하는 이번 총회에는 60개국에서 1만여명(연인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ICID총회는 전세계 회원국과 유엔개

발계획(UNDP), 세계기상기구(WMO)등 50여개 국제기구가 참가해 물, 농업, 환경, 식량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농업분야 최대 국제회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광주총회는 '기후변화와 농촌용수 확보(Securing Water for Food and Rural Community under Climate Change)'를 주제로, 기후 변화에 따른 극심한 홍수와 가뭄 등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관개배수시스템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총회 주요 행사 일정(프로그램)은 ▲학술·기술세션(특별세션·심포지엄·워크숍·세미나) ▲ICID 분과회의 및 집행위원회(농업발전 30여개 분과별 토론·ICID운영 중요 의사결정) ▲전시·홍보(농업용수관리전시관·기후환경산업전시관) ▲현장견학·투어(농업개발현장 시찰·동반자 문화체험, 투어) ▲기타 이벤트(환영리셉션·환송만찬 및 공연 등)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18개국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인 '개발도상국 초청 라운드 테이블'과 '농업

관련 장관 초청 특별세션' 프로그램은 세계적 수준인 한국농업기술의 해외수출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것으로 벌써부터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박재순 2014ICID광주총회 공동위원장인 박재순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가뭄, 홍수 등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식량 부족은 물론 농촌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이번 광주총회에서는 선진 관개배수시스템을 통한 농촌용수 확보와 식량안보 문제 대응 등에 대한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 공동위원장은 또 "이번 총회는 농업용수와 관개배수시설 관련 국내 차세대 전문가를 육성하는 기회이자, 한국 농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한국 선진농업 기술이 개발도상국 등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관개배수위원회는 지난 2009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ICID 제60차 집행위원회에서 터키와 최종 접전 끝에 2014년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수돗물 만들기 신기해요”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가 최근 개최한 '어린이 수돗물 체험캠프'와 '주부 수돗물 교실'에 초등학생과 주부 106명이 참가. 현미경으로 남조류와 녹조류를 관찰하고 수돗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했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제공〉

광주시공무원교육원 무료급식 봉사활동

교육생 40명 광주공원 방문

배식·주방설거지 등 도와

광주시지방공무원교육원 증경간부양성과정 교육생 40명은 최근 광주공원 주변 '사랑의 쉼터'와 '사랑의 식당'을 방문해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료급식 시설의 일손을 돕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교육생들은 배식과 주방설거지, 대청소, 부식다듬기 등에 나섰다.

'광주공원 사랑의 쉼터'는 매일 800명 이상 점심 무료급식과 200명 이상 무료

목욕을 실시하고, 광주직업소년원이 운영하는 '사랑의 식당'은 매일 500명 이상의 노숙인 점心和 숙식을 제공하고 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무료급식을 위해 운영되는 사랑의 쉼터 등 시설의 어려운 환경에 대해 많은 부분을 이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랑을 나누는데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병렬 공무원교육원장은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민생현장과 소외계층 등 교육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英스포츠포럼 대표단 광주 U대회 사전 답사

영국 국가대학스포츠포럼(NUSF) 대표단 앤드류 히벌트 단장 일행이 최근 이틀간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를 방문하고, 자국 선수단의 내년 광주 U대회 참가를 위해 선수촌 등을 사전 답사했다.

〈광주U대회 조직위 제공〉

점심시간 식당 앞 주정차단속 유예 한달 째...시민들 큰 호응

〈오전11시~오후2시〉

연면적 330㎡ 미만 사업장 대상

어린이 보호구역·교차로는 제외

점심시간대 식당가와 음식점 주변에 대한 주정차 단속 유예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고객들이 식당 인근에 주차한 뒤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어렵지만 매출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시민들도 식사 도중 단속이 진행될 경우 차를 빼야 하는 번거로움

을 덜어 환영하는 분위기다.

광주시가 민선6기 들어 실시하고 있는 점심시간 소규모 음식점 앞 주정차 단속 유예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24일(오전 11시~오후 2시)부터 매일 점심시간대 3시간 동안 대부분 지역 소규모 음식점 앞에서 주정차단속을 유예, 주차시설 확보가 어려운 음식점과 이용 시민의 주차고민을 함께 풀어주고 있다.

주정차 단속 완화 대상은 휴게 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점영업과 즉

석판매 제조가공업 중 종사원 5인 미만이거나 연면적 330㎡ 미만 사업장이며, 1만 4600여곳으로 광주지역 음식점 대부분이 혜택을 받고 있다.

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소화전 주변 ▲교통사고와 심한 교통 정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차량 등은 단속 유예에서 제외했다.

회사원 김성민(광주시 서구 치평동)씨는 "식사를 하다가 주차단속이 시작되면

뛰어나간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면서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단속있는 조치로 본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 유예가 이용객들의 편의에 증대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단속 유예에서 제외된 곳이나 좁은 도로에 이중으로 주차하는 등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주정차에 대해서는 점심시간에도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소자본 무점포 사업자 모집 사업설명회

○ 신청기간 : 2014. 8. 26(화) 까지

○ 신청문의 : 010-5600-0232



100% 국산
합법제품!

가정용 | 업소용

무료체험 7일
무이자10개월

음식물 싱크대 즉시처리!

분쇄·분해 후 하수관 배출!
7일 무료사용 후 결정 국내산 100% 합법!

- 싱크대 일체형으로 분쇄, 분해 후 하수관 바로 배출
- 환경부(2013-91)인증, KC인증 된 합법제품
- KBS등 방송3사에서 보도 된 합법제품
- 사용 및 유지관리가 아주 편리한 제품입니다.
- 완벽한 내구성과 고장률 "0%" 철저한 A/S
- 주방 환경(위생) 획기적 변신



음식물처리기 선두 기업
(주)편한세상

구입 및 문의 ☎ 061) 245-2457 (전국 설치)